

성과 관련된 부모역할이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ing Processes on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박사과정 하 상 희*

이 주 연

부교수 정 혜 정**

Dept.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Ha, Sang-Hee

Lee, Ju-Yeon

Associate Professor : Chung, Hye-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ing processes(parental support, monitoring, communication about sexuality) on college student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ith 361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ex, age, and dating period. In addition, sexual attitudes of males were correlated with father's support, mother's support and monitoring of parenting processes. It also found that the direct sexual behaviors were correlated with mother's support. Finally,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x, parents' support, monitoring and communication about sexuality influenced sexual attitudes. Sex and parents' support had indirect influence on sexual behaviors. Experience of dating and communication about sex had direct influence on sexual behavior.

▲주요어(Key Words) : 부모역할(parenting processes), 부모지지(parents support), 성 의사소통(communication about sexuality), 성태도(sexual attitudes), 성행동(sexual behavior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서구 사회의 성 개방화 풍조가 유입되고 우리나라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문화와 가치의식의 혼돈 및 성도덕의 문란이 유발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의

성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부상할 만큼 강력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져왔다(이은화, 1999).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연결망이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조차도 어디서나 손쉽게 성적인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학 시기는 성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단계이며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 중 성 정체성과 성

* 주 저 자 : 하상희 (E-mail : sh0522@hanmail.net)

** 교신저자 : 정혜정 (E-mail : chunghj@moak.chonbuk.ac.kr)

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생들은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서 성의 혼란과 왜곡된 성문화를 경험하게 되며, 대학은 성 개방화 시대의 실험장소가 되어 성 정체성의 혼미를 거듭하게 만드는 장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박선영(2002)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 성관계를 맺는 시기가 남녀 모두 대학 1, 2 학년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김영옥(1982), 이명주(2000), 이은화(1999), 정윤만(2002) 등의 연구에서도, 성태도 및 성행동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 특성변인으로 성별과 연령, 교제경험 등의 변수들을 다루어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개인의 발달적인 특징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기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사회의 변화된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이연희, 2001). 그러나 동일한 사회환경적 조건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성태도나 성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치관의 형성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인 청년기의 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밝혀내는 일은 건전한 성문화 정립을 위해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할 연구이다.

인간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족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이러한 가족 환경은 청년기의 일탈적 성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강현미, 1999; 장미숙, 2000).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에 관한 부분을 금기시하는 풍조 속에서 자녀들에게 직접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성에 관한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자녀 관계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에서 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어려웠고 특히 청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 이후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경향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성지식 수준이나 성과 관련된 실태조사, 성태도나 성행동 위주의 질문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문제를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성적인 행동을 비행청소년의 문제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의 위험한 성행동에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thleen, 1999).

부모역할이란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와 부모자녀간 성 의사소통, 부모의 관찰, 독립성과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행동적·심리적 통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문헌에 따르면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성적인 행동과 태도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athleen, 1999). 구체적으로 자녀의 성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태도, 관찰 등이 관련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Maticka-Tyndale(199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에 관한 자유로운 태도의 증가로 10년 전보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성관계를 더 많이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athleen, 1999), 이러한 자유로운 태도로 인한 위험부담이 높은 성적인 행동들은 개인에게 부정적이며 평생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성경험(이은화, 1999)과 성태도(이명주, 2000; 이연희, 2001), 성행동(김영옥, 1982; 변병준·이인혜, 1995; 정윤만, 2002) 등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녀의 성행동과 관련된 부모 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의사소통만을 다루고 있다(고효정, 1996; 김주희·송은일·강성희, 2003; 박은민, 2000; 정윤만, 2002).

반면에, 자녀들의 성문제와 관련된 외국 문헌들을 보면 자녀들의 성태도나 성행동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간의 성 의사소통(Miller, 1999; Miller 와 Moore, 1990)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지요인(Luster 와 Small, 1994a; Luster 와 Small, 1994b) 과 부모의 감독 요인(Luster 와 Small, 1994a; Miller, 1999; Small, 1993; Whitbec, Yoder, Hoyt 와 Congerk, 1999)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부모역할과 자녀의 성문제를 연구(Kathleen, 1999)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자녀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경험적 연구에서 밝혀진 성별과 연령, 교제유무와 같은 개인특성변인들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지와 부모-자녀 성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과 같은 부모역할을 모두 고려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자녀들의 성태도 및 성행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 대학생들을 구분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성태도와 성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교제유무)에 따른 성

- 태도 및 성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역할(지지, 의사소통, 감독)과 대학생들의 성태도 및 성행동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성태도와 성행동

과거에는 시대와 사회·문화적으로 단순히 생식의 목적으로만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제한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성을 사랑이나 친밀감과 같은 정서적 감정표현 수단이나 쾌락의 수단으로 여기는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이정연, 2001).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어린 시절부터 성에 대한 표현을 억압하고 금기시 해왔으나, 오늘날에는 서구의 성 개방 풍조의 유입과, 성의 도구화·상품화로 인한 성문화의 아미노 현상 등으로 인해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 여파로 혼전 성경험을 허용하는 정도가 더욱 증가하여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이정연, 2001). 성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서 성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태도와 행동들을 본 연구에서는 위험 성행동(Risk-Taking Behaviors)으로 보았다. 이런 성적으로 위험 부담이 높은 행동에 따른 영향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도란 성에 대해 개인이 갖게 되는 신념과 선호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고연숙, 2001)으로 개인마다 성태도는 극히 다양하여 어느 한 가지 성격의 것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和田 實·西田智男(1992)은 대학생의 성태도를 성적 허용성, 도구성, 교류성, 책임성 등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성적 허용성이란 매춘, 혼전 성관계, 혼인관계 이외에서 발생하는 혼외정사,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 일회적인 성관계로 끝나는 만남에 대하여 허용적인가를 나타낸다. 둘째, 성적 책임성은 성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임신 가능성, 임신을 원치 않을 때 반드시 피임을 하고, 성병 감염 가능성 및 낙태에 대하여 진지한 고려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성행위시 성행위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셋째, 성적 교류성은 성행위를 남녀 간의 친밀한 의사소통, 애정적 교류, 정신적 결합으로 보고 성행위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성적 도구성은 성을 즐기기 위한 것,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남녀 간의 게임이나 정복감을 느끼기 위한 것,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 성적 매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성을 단지 도구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위 네 가지 성태도 중 허용성과 도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태도이고, 교류성과 책임성은 바람직한 성태도이다(김주희 등, 2003).

다음으로 이런 성태도는 전반적으로 성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선행 연구들에서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교 경험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이인숙, 1994; 장휘숙, 1995; Nancy 등, 1998; Pluhar 등, 1998). 이는 개인이 어떤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성행동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행동이란 성과 관련된 외현적 행동의 경험 여부를 의미(고연숙, 2001)하는 것이다. 고교 졸업 후 적극적으로 이성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남녀 대학생들은 다양한 성행동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며, 성적인 욕구와 개인의 성 가치관 혹은 사회의 규범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고연숙(2001)과 허재경(2001)의 연구를 기초로 성행동을 직접적인 성행동과 간접적인 성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직접적인 성행동은 키스와 포옹, 애무, 자위행위, 혼전성교, 동성애, 구강섹스, 항문 성교 등을 하는 행동이며, 간접적인 성행동은 잡지, 만화, 인터넷, 비디오 등을 보는 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성행동은 혼전 임신, 낙태, 에이즈 감염 등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간접적인 성행동은 성적 충동을 유발시켜 성비행을 초래할 수 있다(허재경, 2001).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주희 등(2003)의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성태도 중 교류성과 책임성 즉, 바람직한 성태도 측면에 높은 점수가 나타나 비교적 건전한 성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허용성과 도구성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고 책임성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 대학생은 성을 보다 허용적이고 도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자 대학생은 성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희 등, 2003).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들(Luster와 Small, 1994a)은 1960년대 이래 남녀 대학생의 혼전 성에 대한 기준이 감소하여 최근에는 성에 대한 남녀의 태도가 거의 유사해졌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성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희성, 1995).

성행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성행동에 대한 비율은 키스

와 포옹 88.8%, 자위행위 46.0% 동성에 16.6%, 구강섹스와 향문 성교 26.0%, 낙태 82.2% 등으로 나타났다(고연숙, 2001). 문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키스를 경험한 비율이 66.8%(남 63.4%, 여 68.0%), 포옹을 경험한 비율이 78.2%(남 78.2%, 여 78.1%)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동성애와 낙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행동에 대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전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키스와 포옹, 자위행위, 동성애, 낙태 등에 대한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혼전 성교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고연숙, 2001; 박선영, 2002; 임영식 등, 1999).

성태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고찰해보면 먼저 성별의 차이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박선영(2002), 이명주(2000), 이은화(1999), 허재경(2001) 등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 문헌의 경우 Schlz, Bornstedt와 Evans(1977), Simon, Berger 와 Gagnon(1972), Meecer와 Cohn(1979)등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Moscher(1979)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2002, 재인용).

연령에 관한 연구는 김영옥(1982), 이은화(1999), 정운만(2002), 차선희(1999)등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주(200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를 한 허재경(2001)의 연구결과에서 중·고등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에 민감한 중·고·대학생 시기에 있어서는 한, 두 살의 나이차이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성교제경험과 관련된 Delamater와 MacCorquedale의 연구결과 현재 성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성관계의 친밀도와 하였으며, Harrison, Bennett와 Globetti(1969)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성과의 애정이 혼전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 밝혀졌다(김영옥, 1982, 재인용). 박선영(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의 이성교제 유무는 성의식 및 성행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희(2001)의 대학생의 성문화에 관한 연구결과 이성교제 유무가 성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접적인 성행동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외에도 종교유무(김영옥, 1982; 박선영, 2002; 정운만, 2002), 부모의 결혼상태와 경제적 수준(이은화, 1999; 이

정은, 1998; 정운만, 2002), 부모의 교육수준(이은화, 1999; 허재경, 2001), 거주형태(이은화, 1999)등 기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험적 연구결과 밝혀진 성별과 연령, 교제 유무를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성태도 및 성행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성태도와 성행동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연구한 오덕자(2003), 이인숙(1994), 장휘숙(1995), 和田 實, 西田智男(1992)등의 연구를 토대로 위험 성행동을 성태도와 성행동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김주희 등(2003)과 和田 實, 西田智男(1992)이 연구한 것과 같이 대학생의 성태도는 성적 허용성, 도구성, 교류성, 책임성 등의 4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알아볼 것이며, 성행동은 고연숙(2001)과 허재경(2001)의 연구를 기초로 직접적인 성행동과 간접적인 성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역할과 성태도 및 성행동

Kathleen(1999)은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문헌에서 부모 역할을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와 부모자녀간 성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 독립성과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행동적·심리적 통제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성적인 행동과 태도는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Whitbeck 등(1999)은 부모의 지지와 성 의사소통이 자녀들의 성경험 시기를 지연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을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행동적·심리적 지지 및 부모자녀간 성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3가지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의 지지와 성태도 및 성행동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체계 중 자녀들이 가장 가깝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지지는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Barnes와 Farrell(1992)의 연구에서 개념화한 지지는 유대라는 것으로 부모와 청소년이 서로 밀착되어 있는 정도, 부모가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정도, 청소년의 원만한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정도, 위험이나 어려움 등으로부터 자녀들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정도,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는 정도, 부모와 자녀들이 생활 공동체라는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도 등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Barnes와 Farrell(1992)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지

지와 청소년의 행동 간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부모가 보다 지지적일 때 청소년의 행동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부모의 지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Luster와 Small(1994a)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가 10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한 성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Whitbeck(1999) 등의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부모-자녀 관계 즉, 자녀에게 낮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고 거절은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청소년의 위험한 성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이 자녀의 위험한 성행동에 보다 중요한 예측인자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Crosby(2001) 등의 연구에서는 지지적인 가족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HIV/STD 등과 같은 성적 위험 인자에 대해 보호적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가족의 지지가 여자 청소년들의 위험한 성행동들에 대한 보호요인이 됨을 제안하였다(남화정, 2001, 재인용). Luster와 Small(1994b)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를 낮게 받은 집단의 남녀대학생 모두 높은 수준의 위험 성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윤혜정(1993)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중 부모의 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정보, 칭찬 등을 통해 정서적인관심, 도구적 또는 현실적 도움, 충고,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체계 중 부모의 지지는 자녀들이 가장 가깝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해 Hyejeong(1992)은 관계에 있어 감정의 흐름과 정서적인관심, 도구적 또는 현실적 도움, 충고, 정보 등의 수준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중 부모의 지지는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부모역할의 하위영역으로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위험한 성행동 및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성태도 및 성행동

의사소통이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되는 전달매체이며, 둘 이상의 사람과 사람사이에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일련의 행동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감정을 정화시켜 주고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사

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기제가 된다(허재경, 2001). 또한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민하영, 1991)이며,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서로간의 가치전달과 의사전달을 통한 내적 긴장의 완화, 관계 확인에 따른 자신감이나 안정감의 획득에 미친다. 이제원(2001)은 자녀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 이 경우 부모는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알 수 있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기 쉽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심리적 이유로 인하여 부모-자녀 간의 대화가 어렵게 되기 쉽고 세대간의 의견차이가 심하게 된다. 특히 이시기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다른 단계에서 보다 더 자녀와 대화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와 감정의 교류가 없고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박은민, 200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까지 입시교육에만 전념하다보니 부모-자녀사이에 일상적인 의사소통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이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흔히 자녀와 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성 지식을 전달해 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허재경, 2001).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자녀간의 성 의사소통은 자녀의 성적 위험 부담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지고 있다. 우선 민하영(1991)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성 의사소통이 부모의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자녀의 성 관련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임영식 등(1999)의 연구에서 부모와 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성태도와 성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athleen (1999)의 연구에서는 성에 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10대들의 위험한 성행동 시작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Doreen 과 Shirley (1999)의 연구결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들보다 딸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성에 관한 의사소통연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자주, 딸이 아들보다 더 자주 성에 관해 대화하는 것을 나타낸다(허재경, 2001 재인용). Clay(1995)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에 성과 관련된 의

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 자녀들의 출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성문제와 관련된 부모-자녀 성 의사소통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모 역할 중 중요한 요인이고 자녀의 위험한 성행동 및 성태도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이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lay(1995)의 부모-자녀 성 의사소통 척도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편안함 영역, 정보적 영역, 가치적 영역 3가지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영역은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으로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때 편안함의 정도를 측정하는 편안함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은 의사소통 과정 중 배울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측정하는 정보적 영역, 마지막으로 성과 관련된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가족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가치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결과(김오남, 1994; 민하영, 1991; 정유미, 1997)에 관련된 것으로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이 적어지고 자녀들의 스트레스 인지가 낮게 나타나며, 권혜진(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정체감도 높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성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의 일부분으로 청년기에 발달되어야 하는 과업이고 성정체감이 올바르게 형성된 경우 성적으로 위험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의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 중의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

3) 부모의 감독과 성태도 및 성행동

부모의 감독은 가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부모 역할 중 한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화정(2001)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모의 감독을 '자녀의 행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 즉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인지정도를 말하며 자녀의 활동이나 사회적 접촉관계와 행방에 대한 부모의 주의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Crosby 등(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안전한 성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남화정, 2001 재인용). 또한 이계원(2001)은 감독이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자녀가 방과 후에 누

구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모들 중 자녀와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과잉적으로 자녀 일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잉간섭에 대하여 이계원(2001)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행동과 간섭, 잔소리를 많이 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서양의 경우 자녀들의 혼전 성관계에 관한 부모의 감독이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영식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자녀들을 감독하는 가정은 청소년들의 위험한 성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Miller(1999)는 부모의 관찰이나 감독은 청소년의 성적인 행위의 시작 시점을 지연시키고 성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Baumrind(1991)는 부모의 관찰은 비행이나 공격성, 알콜 같은 청소년들의 다른 문제행동의 낮은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Miller, 1999 재인용), Miller 등(1990)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데이트하기에 관해 부모의 엄격한 통제와 청소년의 성적인 관련성이 곡선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thleen(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을 적게 받은 여성의 경우 성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부모의 관찰은 성적으로 위험한 성행동의 시작을 늦추는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Schaefer(1965)는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자녀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실제 행동과 이를 받아들이는 지각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을 부모 역할의 하위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04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예비조사를 토대로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410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내용이 부실한 49부를 제외한 36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령은 만18세에서 20세사이가 47.1%(169명), 만21세 이상이 52.9%(190명)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가 있는 경우가 57.1%(206명),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3.9%(155명)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61.5%(220명), 자취, 하숙, 기숙사, 동거 등 자기 집 이외의 거주형태가 38.5%(138명)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및 현재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은 37.4%(137명)이었고,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62.6%(22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이성교제 기간이 6개월 이하가 20.8%(75명), 7개월에서 1년 이하가 17.7%(64명), 1년 이상이 24.1%(87명)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현재 결혼상태는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85.9%(310명), 결혼했지만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가 14.1%(51명)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부모역할변인척도

(1) 부모의 지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지 척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사회적지지 척도이지만 자녀의 정서적이고 성과 관련된 정보, 칭찬 등의 지지를 통해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성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윤혜정(1993)이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 위험한 성행동과 관련이 없는 물질적 지지를 제외한 3가지 요인의 부모 지지만을 측정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지지로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적 지지는 칭찬, 소절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교양, 의사존중 등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구성은 3개의 하위영역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149 (41.4)		연령	만18-20세	169(47.1)		
	여자	211 (58.6)			만21세 이상	190(52.9)		
대학 전공	인문계	142 (39.8)		학년	1학년	68 (19.0)		
	자연계	185 (51.8)			2학년	106 (29.6)		
	예체능계	30 (8.4)			3학년	103 (28.8)		
			4학년		81 (22.6)			
거주 형태	자택	220 (61.5)		부모 상태	정상	310 (85.9)		
	기타	138 (38.5)			기타	51 (14.1)		
종교	있음	206(57.1)		이성 교제 유무	없음	135(37.4)		
	부교	155(42.9)			있음	226(62.6)		
부모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부	79 (23.2)	부모 연령	49세 이하	부	95(27.6)	
		모	129 (36.9)		50-55세	172(50.0)	모	217(61.5)
			172 (49.1)		56세 이상	77(22.4)		105(29.7)
	49 (14.0)	평균	52.44			31(8.8)		
부모 직업	전문직 중급직 단순직 기타 무직/전업주부	부	107 (31.5)	가족 수입	150만원 이하	63 (23.5)		
		모	26 (7.4)		151-200만원	69 (25.7)		
			130 (37.1)		201-300만원	72 (26.9)		
			47 (13.8)		301만원 이상	64 (23.9)		
			31 (9.1)			13 (3.7)	평균	290
	2 (0.6)		163(46.6)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안정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아버지 .96, 어머니 .95이다.

(2) 부모-자녀 성의사소통

성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lay(1995)가 18문항으로 제작한 부모-자녀 성의사소통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적으로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때 편안함의 정도를 측정하는 편안함 영역과 의사소통 과정 중 배울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측정하는 정보적 영역, 성과 관련된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가족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가치적 영역의 3개 하위영역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아버지 .90, 어머니 .91이다.

(3) 부모의 감독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중 감독 영역의 하위문항을 사용하였다. 감독 하위영역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독이 심한 것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독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아버지 .87, 어머니 .86이다.

2) 성태도 및 성행동 척도

(1) 성태도 척도

대학생의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和田實·西田智男(1992)이 개발한 성태도 척도를 김주희·송은일·강성희(2003)가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적 허용성, 책임성, 도구성, 교류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가지 성태도 중 허용성과 도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태도이고, 교류성과 책임성은 바람직한 성태도이다. 척도는 각 영역별로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들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작성되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의 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허용성 .77, 책임성 .57, 도구성 .74, 교류성 .76이다.

(2) 성행동 척도

직접 성행동은 허재경(2001)의 논문을 참조하여 직접적

인 성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키스와 포옹, 가슴과 성기의 애무, 자위행위, 사창가 출입, 혼전성교, 동성애, 구강섹스, 항문성교에 대해서 최근 6개월 동안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1점에서 매우 자주 있음 5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접 성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다.

간접 성행동은 고연숙(2001)의 논문을 참조하여 잡지, 만화, 인터넷 음란물 접속여부, 비디오 보기에 관한 4문항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최근 6개월 동안 전혀 보거나 접속하지 않았다를 1점, 한달에 4번 이상 보거나 접속했을 경우를 5점으로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성행동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다.

3.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결과 분석에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와 연구 문제에 따라 t-test,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태도 및 성행동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태도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태도 차이의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성태도의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 교제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태도의 허용성, 도구성, 교류성 차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성태도의 책임성 차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을 도구적으로 생각하고 성행동을 이성간의 정서적, 애정적 교류로 여기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성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런 결과는 여성보다 남성이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며, 성을 도구적으로 생각하고, 여성은 성에 대한 책임성과 교류성을 중시한다는和田實,西田智男(1992)의 연구결과와, 성적 허용성과 도구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성에 대한 책임성 측면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태도

변인		성태도			
		허용성	책임성	도구성	교류성
성별	남	2.81 (.78)	4.22 (.55)	2.53 (.77)	4.19 (.57)
	여	2.03 (.69)	4.45 (.47)	2.15 (.66)	4.03 (.61)
	t값	10.05**	-4.25***	5.10***	2.56***
연령	18-20이하	2.16 (.75)	4.41 (.48)	2.21 (.61)	3.99 (.60)
	21세이상	2.51 (.85)	4.30 (.55)	2.39 (.81)	4.18 (.57)
	t값	-4.12***	2.01*	-2.44*	-3.10**
교제유무	없음	2.25(.83)	4.34(.58)	2.30(.72)	3.96(.64)
	있음	2.45(.80)	4.37(.45)	2.31(.74)	4.22(.52)
	t값	-2.32*	-.52	-.04	-4.31***

*p<.05, **p<.01, ***p<.001

김주희 등(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21세 이상의 집단은 성태도의 허용성, 도구성, 교류성 차원이, 만 18세 - 20세 미만인 집단은 성태도의 책임성 차원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많은 집단이 연령이 적은 집단보다 성에 대해 허용적이고, 도구적이며, 교류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반면, 연령이 적은 집단은 연령이 많은 집단보다 성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높게 지녔다. 이런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적 허용성이 높게 나타난 김언희(1992)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했으나,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책임성이 높게 나타나고,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성적 허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和田 實, 西田智男(199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성교제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이성교제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허용적이고 교류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애정이 동반된 성행동에 매우 허용적이라고 한 김영옥(1982)의 연구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며 성개방화 풍조에 따라 성을 금기시하기 보다는 이성교제를 통해 성을 남녀 간의 친밀한 의사소통, 애정적 교류, 정신적 결합으로 보며 성행동시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면서 서로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행동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간접 및 직접 성행동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접 성행동은 성인 잡지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이 65.7%(남학생 96.6%, 여학생 43.8%)로 적어도 한번 이상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인 만화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78.8%(남학생 96%, 여학생 66.5%), 인터넷 음란물 접속 경험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81.3%(남학생 97.3%, 여학생 70%)로, 성인 비디오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87.7%(남학생 97.3%, 여학생 81%)가 한번 이상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이 간접 성행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문인옥, 1997; 허재경, 2001)과 비교해 볼 때, 간접 성행동의 전체적인 비율이 과거에 비해 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여학생들의 간접 성행동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성 개방화 풍조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행동에 대한 이증기준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직접 성행동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93.8%가 자위행위를 경험하는데 비해 여학생은 39%로 나타났다. 또 성교하기 전 전회에 해당하는 성행위이면서 성교 대신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고연숙, 2001)인 구강섹스는 전체 대학생의 33.1%(남학생 42.3%, 여학생 26.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문헌의 90%이상이라는 비율보다는 낮았지만, 국내에서도 구강섹스가 성교의 한 방법으로 많은 남녀 대학생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항문섹스는 전체 대학생의 6.4%(남학생 8.7%, 여학생 4.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체 대학생의 56.8%가 가슴을 중심으로 애무를 한 경험이 있었고, 43.9%가 성기를 중심으로 애무를 한 경험이 있었으며, 포옹, 키스의 경우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험하였다. 성교를 경험한 대학생은 남학생 59.5%, 여학생 27.3%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0.6%가 경험하였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성

교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인옥(1997)의 남자 대학생 30.5%, 여자 대학생 8.1%, 고연숙(2001)의 남자 46.8%, 여자 14.5% 보다 높게 나타나 남녀 대학생의 성교 경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면서 남성의 성교 경험 증가율보다 여성의 성교 경험 증가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다음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행동 차이의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이 나타났는데, 성별, 연령, 교제유무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간접, 직접 성행동 모두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더 많은 성행동을 하고 있다는 차선희(1999), 고연숙(2001), 박선영(2002), 정운만(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남학생이 성적으로 더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령에 있어서도 간접, 직접 성행동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 18세부터 20세까지의 집단보다 만21세 이상의 집단이 간접, 직접 성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연숙(2001), 허재경(2001), 정운만(2002)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혼전 성경험이 많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제유무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간접, 직접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역할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

부모역할과 성태도 및 성행동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아버지의 지지는 직접, 간접 성행

동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성태도는 남학생의 경우 책임성과 교류성, 여학생의 경우 허용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아버지가 지지적일수록 책임성과 교류성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여학생은 아버지가 지지적일수록 허용성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와 의성의사소통은 남학생의 경우 성행동과 성태도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의성의사소통과 직접적인 성행동, 도구적인 성태도에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감독은 남학생의 성행동과 성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감독과 간접·직접 성행동 간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태도에서도 허용성과 도구성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지지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접적인 성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정적 상관을, 여학생의 경우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성태도는 남학생의 경우 책임성과 교류성, 여학생의 경우 허용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어머니가 지지적일수록 책임성과 교류성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여학생은 어머니가 지지적일수록 허용성에서 부적상관, 책임성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와의 의성의사소통은 남학생의 경우 성행동과 성태도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의성의사소통이 직접적인 성행동과 허용적, 도구적인 성태도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은 남학생의 성행동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행동

변인		성행동	
		간접	직접
성별	남	2.02(.68)	1.40(.82)
	여	.93(.59)	.93(.75)
	t값	16.16***	5.64***
연령	만18-20개월이하	1.19(.81)	.86(.75)
	만21개월이상	1.54(.81)	1.36(.80)
	t값	-4.11***	-6.07***
교제유무	없음	1.30(.82)	.74(.70)
	있음	1.45(.83)	1.50(.73)
	t값	- 1.72*	-10.06***

*p<.05, **p<.01, ***p<.001

<표 4> 부모역할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

부모 역할변인		자녀	남학생						여학생					
			성행동		성태도				성행동		성태도			
			간접	직접	허용성	책임성	도구성	교류성	간접	직접	허용성	책임성	도구성	교류성
부	지지	.04	.07	.09	.21*	.04	.24**	-.02	-.13	-.23**	.19	-.10	.04	
	성의사소통	-.03	.01	-.05	-.04	-.04	-.02	-.05	-.17*	-.13	-.02	-.19**	-.08	
	감독	.01	.04	.02	.10	.04	.08	-.17*	-.21**	-.19**	.09	-.19**	-.02	
모	지지	.11	.20*	.12	.29***	.06	.33***	.07	-.14*	-.17*	.17*	-.06	.08	
	성의사소통	.05	.09	-.01	-.03	-.03	-.01	-.03	-.20**	-.14*	.10	-.20**	.05	
	감독	.09	.09	.01	.19*	-.03	.12	-.12	-.18**	-.18**	.17*	-.19**	.04	

*p<.05, **p<.01, ***p<.001

것으로 나타났으나 책임성의 성태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 어머니의 감독이 직접적인 성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태도에서도 허용성과 도구성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에 앞서 VIF 통계량, Durbin-Watson 계수, 독립변인인 부모역할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가 $r=.65 \sim r=.80(p<.001)$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모의 역할변인을 묶어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1) 대학생의 성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을 적용함에 있어 명목변인들은 가변수화 하였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성별, 연령, 교제유무)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이들 통제변인들보다 부모 역할변인과 모 역할변인을 하나로 묶은 부모 역할변인을 첨가시켰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허용적 성태도의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23%였고 통제변인 중 유의한 영향변인은 성별과 연령으로 나타났

다. 여기에 부모특성 변인이 첨가 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24%로 증가하였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허용적인 성태도를 나타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허용적인 성태도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적 성태도의 통제변인의 설명력은 5%였고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변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이 11%로 증가하면서 성별과 부모의 지지, 부모와의 성의사소통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책임적인 성태도를 보이며 부모의 지지를 많이 받고 부모와 자녀간에 성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더 책임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성태도의 통제변인의 설명력은 7%였고 성별만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변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이 10%로 증가하였으며 성별, 연령, 부모와의 성의사소통, 부모의 감독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도구적인 성태도를 가지며 부모와의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부모가 감독을 적게 할수록 더 도구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적 성태도의 통제변인의 설명력은 8%였고 교제유무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 변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이 11%로 증가하였고, 부모의 지지와 성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제경험이 있는 경우와 부모의 지지를 많이 받고 부모와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교류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태도에 대한 제변인들의 영향력

구분		성태도							
		허용성		책임성		도구성		교류성	
통제변인		β	β	β	β	β	β	β	β
성별 ^a		-.42**	-.41***	.20**	.23***	-.22***	-.18**	-.09	-.06
연령		.10*	.11*	-.05	-.07	.09	.09 [†]	.06	.05
교제유무 ^b		.07	.07	.03	.04	.00	-.00	.24***	.25***
부모 역할 변인	지지		-.03		.23***		.07		.20**
	성의사소통		-.05		.12*		-.11 [†]		.10 [†]
	감독		-.06		.10		-.11 [†]		.86
F-value		35.20***	18.51***	6.14***	7.42***	8.83***	6.09***	10.18***	7.42***
R ²		.23	.24	.05	.11	.07	.10	.08	.11
R ² -change			.01		.06		.03		.03
Durbin-Watson		1.81		1.84		1.88		1.74	

[†] p<.01, * p<.05, ** p<.01, *** p<.001

a : 성별 : 남자=0 여자=1 b : 교제유무 : 없음=0 있음=1

2)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 영향력

간접 성행동과 직접 성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들(성별, 연령, 교제유무)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는 이들 통제변인에 부모 역할변인을 첨가시켰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간접 성행동의 통제변인의 설명력은 42%이었고, 통제변인 중 유의한 영향변인은 성별과 연령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모역할변인이 첨가 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43%로 증가하였으며 성별, 연령, 부모의 지지가 유의한 영

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모님이 지지적일수록 간접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지지를 덜 받은 청소년기 자녀가 성적으로 위험한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Luster와 Small (1994a,1994b)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접 성행동은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36%였고 유의한 영향변인은 성별과 연령, 교제유무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모역할변인이 첨가되면서 총변인의 설명력이 38%로 증가하였고 성별과 연령, 교제유무, 부모와의 성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

<표 6> 성행동에 대한 제변인들의 영향력

구분		성행동			
		간접		직접	
통제변인		β	β	β	β
성별 ^a		-.61***	-.60***	-.17***	-.14**
연령		.08 [†]	.08 [†]	.22***	.22***
교제유무 ^b		.04	.04	.48***	.48***
부모 역할 변인	지지		.08*		.04
	성의사소통		-.02		-.11*
	감독		-.08		-.04
F-value		86.77***	44.16*	66.99***	34.96***
R ²		.42	.43	.36	.38
R ² -change			.01		.02
Durbin-Watson		1.92		1.79	

[†] p<.01, * p<.05, ** p<.01, *** p<.001

a : 성별 : 남자=0 여자=1 b : 교제유무 : 없음=0 있음=1

생이 연령이 많을수록, 교제경험이 있을수록 직접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성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직접적인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피임도구 등을 사용하는 안전한 성관계를 맺는다고 본 Miller와 Moore(1990)의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와의 많은 성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성관계가능성을 낮춘다는 Furstenberg, Frank., Moore 와 Peterson(1985)과 Kathleen(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지지와 부모-자녀 성의사소통, 부모의 감독을 포함한 부모역할이 성태도 및 성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변인들이 성태도 및 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확립하고, 대학생 자녀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을 건전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태도 및 성행동의 분석결과를 보면 성태도와 성행동 모두 성별, 연령, 교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남학생과 연령이 높은 집단은 여학생과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성태도의 허용성, 도구성, 교류성 차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과 연령이 높은 집단이 간접, 직접 성행동 모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허용적이고 교류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행동도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간접, 직접 성행동 모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내재되어 있는 성의 이중구조 즉, 남성은 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성에 대해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반면 여성은 성에 대해 아직도 보수적이며 개방적이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허재경(2001)의 연구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차선희(1999)의 연구에서처럼 우리 사회는 순결한 여성과 능력 있는 남성의 결합을 이상적인 결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첫경험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점이 순결을 잃게 된다는 점이라는 사실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성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뿌리 깊은 이중구조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시절부터 가정, 학교, 대중매체 등의 영향으로 남녀가

기준이 다른 성역할을 습득하며, 이러한 차별적인 성역할이 성인기에 이르러 이중적인 성각본이 되어 남녀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남녀로 구분하는 이중기준보다는 남녀를 하나의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성역할정체성과 성역할고정관념 습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유치원 교사 및 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부모역할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역할 중 아버지의 지지, 어머니의 지지와 감독이 아들의 성태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직접 성행동은 어머니의 지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경우 아버지의 감독과 어머니의 지지, 성의사소통, 감독 모두 직접적인 성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의 하위요인이 성태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지지가 10대의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성에 대한 보다 낮은 위험성을 초래해 줄 수 있음을 보고한 Luster와 Small(1994a)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며, 낮은 지지는 청소년의 성 교제 유발에 보다 중요한 예측인자임을 밝혀낸 Whitbeck 등(1999)의 연구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은 아들보다 딸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성에 관한 의사소통연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자주, 딸이 아들보다 더 자주 성에 관해 대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Doreen 과 Shirley (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허재경, 2001 재인용). 부모자녀간의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은 자녀들의 위험한 성행동 예방과 감소에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 유무와 상관없이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을 주로 어머니들이 맡고 있으며 아버지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들과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의 감독 또한 청소년의 안전한 성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는데 특히 Crosby 등(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안전한 성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남화정, 2001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칙이 없어지고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김용성, 1999) 연령에 맞는 적절한 감독이 자녀의 건전한 성태도 확립 및 성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듯이 외국의 경험적인 연

구결과들은 성에대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태도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는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관련된 학업여건상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성인세대는 보수적이고 유교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표현으로 자녀와 성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감독하고 성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기성세대와 자녀세대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자녀와 성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존 성인세대를 위한 성의사소통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성행동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임신이나 출산 등의 결과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대책마련보다는 안전한 성행동을 위한 예방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성태도의 경우 교류성을 제외한 허용성, 책임성, 도구성의 성태도에서 성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책임성에서는 부모의 지지와 성의사소통이, 도구성에서는 성의사소통과 감독이, 교류성에서는 지지와 성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성행동의 경우 간접 성행동에는 통제변인 중 성별이, 부모역할 변인 중에는 부모의 지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성행동에는 통제변인 중 교제유무와 부모역할 변인 중 성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학생 자녀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들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감독이나 통제보다는 부모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가 자녀들이 올바른 성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좀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입식의 지식적인 성교육보다는 어디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해한 음란성문화의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방향의 성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제적인 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대학생 시기에 구체적인 성교육이 제공 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과 가족관련 수업의 확대실시와 성교육 전담 실시 기관과의 연계교육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 생명에 대한 책임윤리 의식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함양되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북도내의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로 본 지역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대표성 문제가 대두되며 우리나라 전체의 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특성상 성과 관련된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밀봉한 봉투를 사용하여 비밀보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실제 생각이나 행동보다 축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성행동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연구되어졌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변인 등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고 사적인 성문화로 인한 병적이거나 문제적인 차원의 성행동 보다는 성행동의 건강한 개념과 기능을 찾음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성에 관한 연구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사회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문화 인식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12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2월 16일

【참 고 문 헌】

- 강완숙(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미(1999).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연숙(2001).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효정(1996). **부모와 청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관 합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1992).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언희(1992).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1982). **혼전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 대학생과 근로청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199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석(1999).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9, 103-127.
- 김주희 · 송은일 · 강성희(2003). 성태도 · 성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 111-124.
- 김태근(1998).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과 비행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주 · 옥선화(2000). 가족학에서의 섹슈얼리티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 모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13-136.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화정(2001).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인옥(1997). 일부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67-100.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2002).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민(2000). 대학생활적응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성 외(1995). 미혼남녀의 성행동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 변병준 · 이인혜(1995). 남자 대학생들의 감각추구 성향과 성행동간의 관계.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5, 145-153.
- 오덕자(2003). 사이버 시대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가치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1), 719-733.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주(2000). 대학생의 성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139-199
- 이연희(2001). 대학생의 성문화 특성 연구.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3-109.
- 이인숙(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연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1999). 대학생의 성경험과 관련요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200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대인관계간의 상관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1998). 자아상, 성태도, 충동성과 성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식 · 김현주 · 오세진(1999). 청소년기 위험한 성행동. *사회과학연구*, 15.
- 장미숙(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5).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가치관 연구. *전환기에 선 한국의 가치관*, 155-213.
-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만(2002). 일부지역 대학생의 성행동과 관련요인. 부산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승(199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비행 기회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연(2002).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과 성격 특성변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선희(1999). 남녀 대학생의 성문화와 성의식 연구 - 순결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재경(2001).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미영(2001). 청소년의 사이버공간 경험과 개인특성 및 부모통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和田 實 · 西田智男(1992). 性に對する態度および性行動の規定因. *社會心理學研究*, 7(1), 54~68.
- Barnes, G. M. & Farrell, M. P.(1992). Parenting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63-776.
- Chung, H. S. (1992). *Effects of conflict with mother-in-law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korean daughters-in-law*. Texas tech university
- Clay, W.(1995). *Parent, children and communication: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Thomas J. Socha,

- Glen H. Stamp(Eds.). *Parent-child communication about sex*(173-201). Mahwah, N.J.: L.Erlbaum.
- Furstenberg, Frank F., Moore, K. A. & Peterson, J. L. (1985). Sex education and sexual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5*, 1331-1332.
- Kathleen, B. R.(1999). Parenting processes related to sexual risk-taking behaviors of adolescent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99-109.
- Luster, T. & Small, S. A.(1994a). Adolescent sexual activity : An ecological, risk-facto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81-192.
- Luster, T. & Small, S. A.(1994b).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risk-tak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22-632.
- Maticka-Tyndale, E.(1991). Modification of sexual activities in the era of AIDS: A trend analysis of adolescent sexual activities. *Youth & Society, 23*, 31-49
- Miller, K. S. & Moore, K. A.(1990). Adolescent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parenting : Research through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25-1044.
- Miller, K. S.(1999). Adolescent Sexual Behavior in two ethnic minority samples : The role of family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85-98.
- Nancy J. Murray & Laurie S. Zabin & Virginia Toledo-Dreves & Ximena L. Charath(1998).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influencing first intercourse among urban students in Chile.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4*(3), 139-144.
- Pluhar Erika & Frongillo Edward A. Jr. & Stycos, J. Mayone & Dempster-McClain(1998).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the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ex education & therapy, 23*(4), 288-296.
-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mall, S. A. & Kerns, D.(1993). Unwanted sexual activity among peers during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41-952.
- Whitbeck, L. B., Yoder, K. A., Hoyt, D. R. & Conger, R. D.(1999). Early adolescent sexual activity :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934-946.